

조선후기 박물학적 취향과 김려의 한시*

강 혜 선**

차 례

- | | |
|--|---------------------------|
| I. 서론 | 1. 일상생활의 실용적 소재 |
| II. 조선후기 박물학적 취향의 성행
과 그 의미 | 2. 物譜의 성격을 띤 주석의 활용 |
| III. 「만선와잉고」의 박물학적, 실용
적 취향과 시적 감수성 | 3. 박물학적 건문과 일상 체험의 결
합 |
| | IV. 결론 |

I. 서론

薄庭 金鑣(1766-1821)는 중세적 질서가 해체되고 새로운 질서가 활발히 모색되던 18, 19세기에 활동한 문인으로, 조선후기 문풍의 변화를 선도하였다고 평가되는 인물이다. 일찍이 연암그룹과 함께 담정그룹이라 일컬어지면서 주목되어 왔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그의 문학적 활동 및 성과가 다방면에서 더욱 풍부하게 조명되었다. 「丹良稗史」, 「埵窟日記」 등의 패사소품문의 세계¹⁾, 조선후기 최고의 악부시로 평가되는 <思牖樂

* 이 논문은 성신여자대학교 2004학년도 학술연구조성비(인센티브과제)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 성신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府>의 세계²⁾, 물고기의 생태와 어촌 풍속을 기록한 『牛海異魚譜』의 세계³⁾, 『寒臯觀外史』 『倉可樓外史』 등 야사총서류의 세계, 주변문인들의 시문을 수집, 정리한 『薄庭叢書』의 세계⁴⁾ 등에 이르기까지 김려의 폭넓은 문학 활동과 다양한 문학적 성과가 전모를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면서, 김려 한시의 중요한 특징을 조선후기 博物學的 취향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8, 19세기 서울, 근기 지역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박물학적 취향이 매우 성행하였던 바, 지식인들은 각자의 관심에 따라 각종 物譜類를 만들거나, 박물학적 글쓰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 보였다. 이는 이 시기에 이르러 변화된 세계상과, 그에 대응하는 인식의 변화와 글쓰기의 변화를 보여주는 징후라 할 수 있다.

김려의 박물학적 취향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자료는 「우해이어보」이다. 진해 유배기에 저술된 「우해이어보」는 魚族의 생태와 성질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박물학적 글쓰기를 한 축으며 하면서, 또 어촌의 풍속과 어촌민의 생활을 기록하는 風俗誌的 글쓰기를 한 축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죽지사의 성격을 띤 <牛山雜曲>이 또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우해이어보」는 일반적인 물보와 달리 독특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본적인 성격은 魚譜라는 명명에서도 드러나듯이 물보이다. 이와 같이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박물학적 관심과 취향은 대체로 산문양식을 통해 실현될 수밖에 없다. 이수광의 『지봉유설』처럼 백과사전식 저술 방식을 취하거나, 「우해이어보」와 같이 물보의 방식을 취하거나, 자유로운 글쓰기를 시도하는 雜記, 筆記의 방식을 취하는

- 1) 강혜선, 「김려의 패관소품문 연구」, 안대회 엮음, 『조선후기 소품문의 실체』, 태학사, 2003.
- 2) 박혜숙, 「사유악부 연구」, 『고전문학연구』 6, 한국고전문학회, 1991. 김여 지음, 박혜숙 옮김, 『부령을 그리며』, 돌베개, 1996.
- 3) 김려 지음, 박준원 옮김, 『牛海異魚譜』, 다운샘, 2004.
- 4) 박준원, 「『薄庭叢書』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1994.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다.

그런데 김려는 서정을 본질로 하는 한시양식을 통해서도 『우해이어보』와 같은 박물학적 관심, 취향을 풍부하게 반영하고 있어 주목된다. 김려가 10년의 유배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여주의 향리와 서울의 집에서 직접 원예와 농사에 종사하면서 얻은 견문과 체험을 바탕으로, 각종 꽃, 과실, 채소 등을 소재로 한 작품들과, 또 각종 생활 기물을 읊은 작품들을 모은 시고인 『萬蟬窩勝藁』가 그것이다.⁵⁾ 이에 본고는 김려의 『만선와잉고』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박물학적 취향이 한시양식과 만나는 양상을 주목하고자 한다. 『만선와잉고』의 작품들은 김려의 한시세계를 전체적으로 살피는 과정에서 소개된 바 있지만⁶⁾, 박물학적 취향이 한시양식과 만나는 지점에서 김려가 이룩한 문학적 성과와 그 의미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는 『사유악부』와 어떤 면에서는 상통하면서도 또 다른 면모를 띠고 있는, 박물학적 취향의 한시세계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보고자 한다.

II. 조선후기 박물학적 취향의 성행과 그 의미

조선후기 특히 18세기는 이념 중심의 사고가 해체되면서 일상의 소소한 사물들에 대해 지식인들이 박물학적인 관심과 함께 편집광적인 집착과 몰두를 보여준 예가 많았다. 이들은 추상적이고 일상에 별 보탬이 되지 않는 관념적 철학 대신, 생활 주변에 널려 있는 자질구레한 사물들에 대해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했다. 서유구의 『임원

5) 『만선와잉고』는 『瀟庭遺藁』 권4에 수록되어 있다. 본고가 대상으로 삼은 텍스트는 『한국문집총간 289』에 수록된 『담정유고』이다. 이하 인용 면수는 『한국문집총간 289』의 면수이다.

6) 허준구, 『담정 김려의 시세계 - 그 인생역정에 따른 시경향』,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01.

경제지』, 박제가의 『북학의』, 홍길주의 『숙수념』,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등이나, 서유구의 『種藟譜』, 丁若銓의 『茲山魚譜』와 같은 물보류, 柳僖의 『物名攷』, 정약용의 『物名攷』와 같은 물명류 등이 그러한 예들이다. 이들은 명말청초 저작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특정분야에 관한 기록을 모아 엮는 방식의 저술이 널리 애독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였다. 이상의 저술들이 박물학적 관점에서 사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 정리한 것이라면, 특정 사물 한 가지에 집중하여 그와 관련된 모든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하는 방식의 글쓰기도 성행하였다. 윤희매 곧 蠟梅에 대해 저술한 이덕무의 『輪廻梅十箋』, 완상용 비둘기 사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유득공의 『鶉合經』, 앵무새와 관련된 문헌들을 폭 넓게 수집, 정리한 이서구의 『綠鸚鵡經』 등이 그러한 예들이었다.⁷⁾

또한, 김려의 절친한 친구이자 문학적 동지이기도 하였던 이옥 또한 박물학적 취향의 글쓰기 사례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옥은 문체 문제로 充軍 이후 고향 남양에서 지냈는데, 이 시기에 『白雲筆』 『烟經』과 같은 박물학적 저술을 남기고 있어 주목된다. 『백운필』(1803년 경)⁸⁾ 談鳥, 談魚, 談獸, 談蟲, 談花, 談穀, 談果, 談菜, 談木, 談艸의 차례로 10개 부문에 총 164칙의 기사를 수록한 저술이다. 소재목에서 보듯이, 새, 물고기, 짐승, 벌레, 꽃, 곡식, 과일, 채소, 나무, 풀 등에 관한 경험과 견문을 기록한, 흥미로운 저술이다. 또 『연경』(1810년 경)은 이옥이 사소하고 무의미하다고 보이고 여겨지던 사물에 관한 저술이 큰 의미를 지닌다는 의식을 표명하면서 담배에 대한 모든 지식과 정보를 수집, 정리한 것이다.⁹⁾ 김려가 해배 후 여주에 머물 때 이옥이 내왕 한 것으로 보

7) 정민, 「18세기 지식인의 玩物 취미와 지적 경향 - 『鶉合經』과 『綠鸚鵡經』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23, 한국고전문학회, 2003.

8) 『백운필』은 김영진, 『李銜 『白雲筆』 연구』(계명한문학회 2005학년도 동계학술발표 대회 요지문)에 의해 처음으로 그 자료가 구체적으로 학계에 소개되었다.

9) 『연경』은 안대회, 「이옥의 저술 『담배의 경전(烟經)』의 가치」(『문헌과해석』 24, 문헌과해석사, 2003)에서 자료를 소개하고 해설하였다.

아,¹⁰⁾ 김려는 이옥의 『백운필』이나 『연경』도 접했으리라 짐작된다. 이렇게 보면, 동시대의 박물학적 취향의 성행 속에서 김려와 이옥 역시 그러한 면모를 제각기 실천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박물학적 취향의 각종 저술들과 함께 주목되는 것이 조선후기 한시양식에서 보이는 박물학적 취향이다. 한시에서는 詠物詩의 형태로 일찍부터 사물(초목, 화훼, 동물, 기물 등을 포괄하는)을 읊는 전통이 있어 왔는데, 조선후기의 영물시는 그러한 전통을 계승하면서 전대와 확연히 달라진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대의 영물시가 작가마다 그 편수가 많지 않은데 비해, 17세기 이후로는 연작시의 형태를 띠든 아니든 간에 특정 작가의 경우 그 편수가 놀랄 만큼 증대되고 있다. 또한 전대의 영물시가 대상으로 삼는 사물들이 비교적 제한적인 것에 비해, 이 시기 영물시의 대상은 작가 자신의 일상 주변에 포진한 구체적 사물들을 매우 광범위하게 포섭하고 있다. 그리고 전대의 영물시가 여전히 사물의 물질적, 구체적 속성 너머에 존재하는 추상적 관념이나 이념에 강력하게 견인되는 데 비해, 이 시기 영물시는 작가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실용되는 사물의 구체적 속성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한시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는 예로 박물학적 취향이 강했던 愼後聃(1702-1761)의 한시를 들 수 있다.¹¹⁾ 그는 <蔬食十八詠>에서 생강, 무, 순무, 토란, 아욱, 미나리, 파, 부추, 상추 등 18종의 채소를, <種藥八詠>에서는 마, 지황, 궁궁이, 당귀, 맥문동 등 8종의 약초를 읊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각종 채소와 과일의 산지를 기록한 <物産記>, 飛禽, 走獸, 鱗虫, 介虫의 종류와 성질을 기록한 <動植雜記>, 주요 과일의 물

10) 김려의 <題墨吐香草本>에 의하면, 김려가 여주에 칩거하고 있을 때 이옥이 소를 타고 남양에서 찾아와 「목토향」 초고를 전해 주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이 시기 김려와 이옥이 내왕하며 서로의 작품 세계를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1) 올해 6월에 신후담의 필사본 문집이 수집, 정리되어 『河濱先生文集』(아세아문화사, 2006)으로 영인되었다.

보를 정리한 <百果志>를 남기고 있다.

金昌業(1658-1721) 역시 다량의 영물시를 남겨 주목된다. 은행나무, 단풍나무, 소나무, 자귀나무, 뽕나무, 오동나무 등 총 19종의 수목류, 마늘, 부추, 파, 가지, 토란, 시금치, 상추 등 총 26종의 채소류, 지황, 향유(香薷), 궁궁이, 박하, 길경 등 총 11종의 약초류, 여뀌, 갈대, 창포, 산수유 등 14종의 화훼류를 읊었다.¹²⁾ 화훼류의 경우 김창업은 다시, 여춘화, 모란, 작약, 해당화, 목련, 장미, 두견화, 국화, 산철쭉 등 총 22종의 꽃을 읊었다.¹³⁾ 특히 김창업의 시에서 주목할 점은 다수의 작품에서 제목 아래 俗名이나 異名, 종류 등을 간단히 부기하고 있는 점이다. 이 점은 이후 살펴볼 김려의 시와 상통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文字學, 聲韻學, 地理學 등 다방면에 걸쳐 업적을 남긴 申景濬(1712-1781)의 경우도 박물학적 취향의 시문을 남기고 있다. 신경준은 사계절에 걸친 남새밭 관리법에 해당할 내용을 장편 오언고시 형식에 담은 <菜圃引>을 지었으며, 33종의 화훼에 대한 전문 지식을 모아 <淳園花卉雜說>을 지었다. <菜圃引>은 어떤 사람이 전해준 남새밭 관리법이라 전제하면서도,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본인이 검토한 醫書 등을 참조하여 주석을 달고 있으며, <淳園花卉雜說>은 자신이 직접 순창에서 화훼를 재배하면서 관찰해 보니 『爾雅』나 초목류를 다룬 책들과 들어맞지 않은 점이 많아서 짓게 되었다고 하였다.¹⁴⁾

이와 같이 신후담, 김창업, 신경준의 예에서 보듯이, 이들 시문의 특성은 작가 자신의 생활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사물들에 대하여 실용적 관심이 증폭되어 나타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들 모두 생활의 토대가 서울이라는 도시적 공간과 仕宦의 구속을 탈피하여 향리에서 원예와 농사에 종사하며 문필활동을 했던 사실을 고려하면, 한시양식에서 나

12) 이상은 『老稼齋集』(『한국문집총간 175』) 권2에 수록되어 있다.

13) 이상은 『노가재집』 권3에 수록되어 있다.

14) 『旅菴遺稿』(『한국문집총간 231』) 권1에 <菜圃引>이, 권10에 <淳園花卉雜說>이 수록되어 있다.

타나는 박물학적 취향이란 실제 생활체험에서 비롯된 실용적 관심과 밀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창업은 그의 호가 稼齋 또는 老稼齋이듯이, 일찌감치 사환을 포기하고 서울 근교 東郊의 松溪(지금의 성북구 장위동)에 은거하며 농사와 시문 창작에 매진하였으며, 신후담 역시 李灑의 문인으로 평생 파주에서 재야학인으로 살았으며, 신경준 역시 33세에서 43세까지는 고향에 묻혀 살면서 저술에 힘썼던 인물이었다.

따라서 생활 주변의 일용적, 실용적 사물에 대한 박물학적 관심이 반영된 일련의 시문들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도시의 豪奢의 또는 閑情的 취향의 원에 관련 시문들이나 서화골동류 관련 시문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Ⅲ. 「만선와잉고」의 박물학적, 실용적 취향과 시적 감수성

선행연구의 의하면, 김려의 탁월한 시인적 감수성은 날카로운 현실 인식과 새로운 가치관의 모색으로 이어지고 있어 담정그룹이 도달한 최고의 높이를 보여준다. 그의 대표작 「사유악부」의 세계는 민간의 세계를 그저 '바라보는' 차원에서 인식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자기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 당대의 민중을 추상적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피와 살을 갖춘 구체적 인간으로 이해하면서 그들과 친교를 나누는 경지에까지 나아갔다. 이처럼 김려의 시적 감수성은 현저히 탈중심적 성격을 보이고 있는 바, 하층민, 변방민, 여성 등의 '주변부'를 향하고 있다. 또한 만물을 평등하게 보는 그의 감수성은 하찮은 동물이나 사물에까지 미치고 있다.¹⁵⁾ 이러한 논의에서 본고의 관점과 맥락이 닿는 부분이 김려의 시적 감수성이 동물이나 사물에까지 미치는 지점을 지적한 부분이다. 「사유

15) 박혜숙, 전계서, 188-197쪽.

악부」의 시적 대상은 대개 부령에서 김려가 만난 인물들에 집중되어 있지만 부령에서 접한 사물 또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사물에 대한 서정적 감수성 외에 부분적으로 박물학적 태도까지 감지되고 있어, 「우해이어보」와 「만선와잉고」의 박물학적 취향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짐작할 수 있다.

김려의 「사유악부」에는 인삼, 송이버섯, 까치, 오골계, 망아지 등 생물이거나, 단천산 자리, 日本刀, 족집게, 물방아 등의 기물을 읊은 시작들이 있다. 이러한 시작들은 그 내용이 박물학적이지는 않지만 소재 자체가 박물학적 취향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옥수수’를 대상으로 한 다음의 시는, 사물에 대한 시적 감수성이 박물학적 시선으로 나아가는 지점을 보여주고 있다.

무얼 생각하나?
 저 북쪽 바닷가.
 북쪽에선 옥수수를 남새 심듯 해
 열 이랑 이상이나 농사를 짓지.
 여름 되면 오이보다 큰 대쟁이 달리고
 비단 같은 수염이 너풀너풀 날리네.
 석류 알 같은 둥근 알갱이
 누렁, 자주, 짙장, 하양, 골고루 있네.
 시루에 찌서 내면 그 맛도 좋거니와
 배 한껏 부르고 위장까지 보한다네.
 지방마다 풍속은 같지 않아서
 남쪽에서는 천대하나 북쪽에서는 귀하지.
 問汝何所思, 所思北海湄.
 北人種藟如種菘, 畝種之田過十畝.
 當夏結窠大於瓜, 銀鬚錦髮亂參差.
 殼中團粒似榴房, 紫黑黃白無等差.
 鬻炊甌蒸稱佳味, 漫喫充腸兼補胃.
 由來土俗不相同, 南人所賤北人貴.¹⁶⁾

북방에서 주식처럼 먹는 옥수수의 생태와 속성, 그리고 먹는 법과 식용의 효용까지 언급하고 있다. 그 자신 유배생활에서 가끔 맛보았을 옥수수에 대하여 이와 같이 박물학적인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관심이 확대된 것이 바로 「우해이어보」와 「만선와잉고」라 하겠다.

「만선와잉고」의 창작배경은 다음 자료를 통해 볼 수 있다.

신미년(1811년) 봄에 나는 여릉의 별장에서 굶주림을 피하여 서울의 삼청동 부근으로 옮겨와 살고 있었다. 소라껍질처럼 작은 집에는 빈 터에 제법 숲이 있었지만 모두 황량하게 버려두고 가꾸지 않고 있었다. 집안은 매우 궁핍하여 三旬九食할 정도였다. 매번 병이 난 외중에도 눈에 보이는 대로 마구 읊어 종이에 적어서 상자에 던져 놓곤 하였다.

지금 비로소 찾아 읽어보니, 각종 나무들을 읊은 칠언율시와 각종 풀들을 읊은 칠언절구는 모두 잃어버리고, 각종 꽃을 읊은 오언율시도 태반을 잃어버리고 그 나머지만 겨우 온전하였다. 짐짓 버려두기에 아까워서 조카 학연(鰲淵)에게 깨끗한 종이에 옮겨 적게 하였다.

신사년(1821) 맹하(孟夏) 5일 을유 입하에 담옹이 위성의 영각(鈴閣)에서 쓴다.¹⁷⁾

1806년 10월 김려는 비로소 유배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와 보니, 논밭과 집은 모두 남의 소유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¹⁸⁾ 그리하여 1811년 경제적인 이유로 여주에서 서울 삼청동으로 옮겨와 살았던 것이다. 김려는 1812년 관직에 처음 나아갈 때까지 직접 농사에 종사하면서 견문과 체

16) 박혜숙, 전게서, 65쪽.

17) 『담정유고』 권4, <題萬蟬窩腰稿卷後> 447쪽. 辛未春, 余自廬陵別業, 避飢就食于漢師之三清衙衙, 屋如螺螄殼, 頗有空址園林, 然皆蕪穢不治, 家甚窶乏, 三旬九食, 每病暇 隨目所見, 漫咏紙墨, 遂多投諸巾衍. 今始搜閱, 衆木七律, 衆草七絕, 全數闕失, 衆花五律, 逸其大半. 其餘苟完, 故棄之可惜, 倩侄子鰲淵, 移寫淨紙云爾. 辛巳孟夏五日乙酉立夏, 薄翁書于渭城之鈴閣.

18) 『담정유고』 권1, <題歸玄觀卷後> 407쪽. 丙寅十月始解歸, 歸視其家, 田園第舍, 盡爲他人之有, 只一茹廬數椽, 不蔽風雨, 愴念存沒, 不覺神闕.

힘을 넓혔는데, 『만선와잉고』는 그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만선와잉고』는 30종의 과일(뿌리 열매를 포함한)을 대상으로 한 오언고시 연작 <衆果五古十韻三十首>, 19종의 채소를 대상으로 한 오언고시 연작 <衆蔬五古十韻十九首>, 10종의 화훼를 대상으로 한 오언율시 연작 <衆花五律十首>, 42종의 기물들을 대상으로 한 오언절구 연작 <衆器五絶四十二首>로 이루어져 있다. 이 밖에 여러 가지 나무들을 대상으로 한 칠언율시 연작 <衆木七律>과, 여러 가지 풀들을 대상으로 한 칠언율시 연작 <衆草七律>이 있었으나 모두 없어지고, <衆花五律>도 태반이 없어졌다고 하니, 김려가 얼마나 많은 사물을 대상으로 시작을 시도했는지 알 수 있다.

1. 일상생활의 실용적 소재

『만선와잉고』의 제재를 유형별로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 과일 30종: 홍매(紅梅), 단행(檀杏), 홍시(鴻柿), 포도(浦桃), 석류(石榴), 대추(壺棗), 산앵두(鬱桃), 오얏(甘李), 능금(來禽), 앵두(含桃), 배(快果), 산딸기(蓬蘞), 밤(溫栗), 모과(木瓜), 아기배(棠梨), 사과(蘋婆), 은행(銀杏), 아가위(棠棣), 호도(胡桃), 산포도(燕蕪), 도토리(橡阜), 오디(桑葢), 산초(漢椒), 구기자(朱欏), 으름(鶯覆), 정향시(君遷), 쇠귀나물(慈姑), 토란(土蓮), 고구마(甘藷), 마(玉延)
- 채소 19종: 아욱(春葵), 무(菜菔), 시금치(菠薐), 상추(高苳), 파(綠蔥), 호박(南蒞), 고추(丹椒), 순무(蔓菁), 달래(葫蒜), 배추(晚菘), 염교(芥臺), 박(蛄瓠), 차조기(紫蘇), 동아(地芝), 오이(胡瓜), 곰취(熊蔬), 부추(早韭), 가지(銀茄), 쑥갓(苧蒿)
- 꽃 10종: 모란(牡丹), 백일홍(紫薇), 무궁화(木槿), 월계화(月季), 옥잠화(玉簪), 진달래(杜鵑), 양귀비(罌粟), 봉선화(鳳仙), 패랭이(石竹), 맨드라미(鷄冠)
- 기물 42종: 중국산 벼루(燕硯), 철 촛대(水鍔燭臺), 해주산 먹(海州墨), 백자 연적(白瓷硯滴), 남평산 부채(南平扇), 목면 단령(木綿圍)

領), 죽피 망건(竹帽套), 털 가죽신(毳布黑靴), 놋쇠 요강(錫虎子),
 오동나무로 만든 품대(桐瘤品帶), 주묵(硃墨), 오동나무 벼루집(梧
 桐硯匣), 양털 붓(羊毫筆), 기름 먹인 종이로 만든 비옷(漚紙油衫),
 구리 환도(銅鑲刀), 옷칠한 등넝쿨 채찍(髹漆藤鞭), 흑각패(黑角
 牌), 쥐가죽으로 만든 귀덮개(鼠皮耳掩), 돌인장(石印), 고운사에
 만든 은지(孤雲銀紙), 구리 찻단지(銅鑊子), 관음죽 담뱃대(觀音烟
 筒), 오사모(烏紗帽), 은제 담배갑(鑲銀烟栝), 인주함(印硃盒), 당
 관 사기(唐唐史記), 보이차(普洱茶), 철제 담배함(南靈鐵盒), 백총
 마 털로 만든 빗자루(鬃寫子), 고래수염으로 만든 갓 걸이(鯨鬚笠
 掛), 풍로구(風爐口), 푸른 명주 담배갑(靑紬烟匣), 호로병(蘆瓠瓶),
 앵무조개 조가비 술잔(鸚螺殼盃), 유기 주전자(錫煎子), 당피로 만
 든 자리(唐皮涼簟), 대추씨로 만든 갓끈(棗核纓), 정원산 당건(定
 遠宕巾), 인찰판(印札板), 백자 촛대(粉瓷燭筒), 상아 저울(牙秤子),
 위성류로 만든 담뱃대(檉癭烟臺)

이상의 제재들을 살펴보면, 가장 큰 특징이 모두 일상생활에 소용되는
 사물이라는 점이다. 김려가 읊고 있는 과일류와 채소류는 모두 식생활에
 서 가장 일반적이면서 친근하게 소용되는 것이다. 기물류 또한 모두 그
 자신이 소유하고서 사용하는 일용품들이다. 특히 사대부문인의 문화적
 요구나 취향과 무관한 생활용품들이 많이 눈에 띈다. 놋쇠 요강, 빗자루,
 귀 덮개, 찻단지, 주전자, 풍로구, 저울 등의 기물이나, 담배와 관련된 각
 종 물품이 그러한 예이다. “채소를 심고 거두는 것은 생활을 풍족하게
 하는 것이니 실생활에 유의하다.”고 서유구가 <藝園誌引>에서 말한 것
 처럼, 농산물과 각종 물건은 인간의 厚生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 김
 려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자신의 주변에 포진한 실용적 소재에 관심을
 기울이고, 나아가 시적 감수성을 발휘하였던 것이다.

한편, 과일이나 채소류, 기물류와 같은 실용적 대상과 구별되는 영역
 에 화훼 또는 원예 취향이 놓여 있다. 이는 조선후기 문인들이 실용의
 추구하고 함께 문화와 여가를 동시에 추구하려 한 결과이다. 그러데, 김려
 가 읊고 있는 화훼를 통해 볼 때 그의 원예 취향은 당시 부유한 경화사

죽이 서울 도성 안에서 화려하게 가꾸었던 名園들과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기이하고 귀한 화훼에 집착하고 몰두하는 호사스러운 원예 취향이 라기보다는 소박하고 일상적인 원예 취향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은 인왕산 한 골짜기에 작은 초가집을 짓고 집주위에 마련한 동산과 남새밭에서 일용할 과수와 채소 등을 손수 심고 가꾸며 살고자 하는 소원을 피력한 張滉(1759-1828)의 <平生志>와 상통하는 면모이다.

푸른 왜나무 한 그루를 문 앞에 심어서 그늘을 드리우게 하고, 벽오동 한 그루를 사랑채에 심어 서쪽으로 달빛을 받아들이고, 포도넝쿨이 사랑채의 옆을 덮어서 햇볕을 가리게 한다. 탕자나무 병풍 한 굽이를 바깥채의 오른쪽에 심어서 문을 막고, 파초 한 그루를 그 왼쪽에 심어서 빗소리를 듣게 한다. 울타리 아래는 뽕나무를 심고, 그 사이에 무궁화와 해당화를 심어서 빈틈을 채운다. 구기자과 장미는 담 모퉁이에 붙여서 심어 두고, 매화는 바깥채에 숨겨두고, 작약과 월계수, 월계화는 사계절 안채의 뜰에 심어 둔다. 석류와 국화 같은 경우는 안채와 바깥채에 나누어서 기른다. 패랭이꽃과 맨드라미는 안채 마당에 흩어 심고, 진달래와 철쭉, 백목련은 정원에서 교대로 기른다. 해아국(孩兒菊)과 들국화 종류는 언덕에 여기저기 심는다. 자죽(紫竹)은 알맞은 흙을 골라 기르고, 앵두나무는 안채의 서남쪽 모퉁이를 빙 둘러 심고, 그 너머에 복숭아나무와 살구나무를 심는다.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사과나무, 능금나무, 잣나무, 밤나무를 차례로 심고, 옥수수는 마른 땅에 파종한다. 오이 한 포기, 동아 한 포기, 파 한 고랑을 동쪽 담장의 동편에 섞어 가꾸고, 아욱과 갓, 차조기는 집 남쪽에 구획을 지어 가로 세로로 심는다. 무와 배추는 집의 서쪽에 심되 두둑을 만들어 양쪽을 갈라놓는다. 가지는 남새밭 곁에 모종을 내어 심으니, 가지의 빛깔이 자주색이다. 참외와 호박은 사랑 울타리에 뻗어서 못 나무들을 타고 오른다.¹⁹⁾

19) 『而已廣集』(『한국문집총간 270』) 권14, <平生志> 578면. 綠槐一樹植門前以蔭, 碧梧一樹樹外軒, 西受月影, 葡萄架架其側以承陽, 柵屏一曲樹外舍之右以塞門, 芭蕉一本種其左以聽雨, 桑樹籬下, 間之木槿玫瑰以補缺, 枸杞薔薇靠牆角, 梅花藏外舍, 芍藥月桂四季置內庭, 若榴及菊, 分蓄內外舍, 石竹鷓冠散種內舍堦除, 杜鵑躑躅木筆交栽于園, 孩兒菊苦蕒之屬紛披于岸, 慈竹占宜土, 而養舍桃週 內舍西南隅,

김려가 읊은 10종의 꽃 모란, 백일홍, 무궁화, 월계화, 옥잠화, 진달래, 양귀비, 봉선화, 패랭이꽃, 맨드라미가 장흔이 설계한 집 바깥채와 안채 마당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어, 이들 화훼가 당시 일반적으로 재배되던 평범한 화훼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김려가 읊은 과실류와 채소류 역시 당시 사대부 문인들이 자급자족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심고 가꾸는 것들임을 알 수 있다.²⁰⁾

그런데 장흔의 경우, 기물에 대해서는 김려와는 다른 도시적 취향을 추구하였다. 장흔이 추구한 기물과 김려가 읊은 기물을 비교하기 위해, 장흔의 <清供八十種>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맑은 용품 80종: 오래된 거문고(古琴), 오래된 검(古劍), 오래된 거울(古鏡), 오래된 먹(古墨), 서법책(法書), 이름난 그림(名畵), 단계산 벼루(端溪硯), 호주산 붓(湖州筆), 이름난 향(名香), 이름난 차(名茶), 서양 도자기병(洋瓷甁), 녹나무로 만든 표주박(瘦木瓢), 화전지(花箋), 연적(硯滴), 붓통(筆架), 벼루갑(硯匣), 청주나 탁주(淸濁酒), 바둑(黑白碁), 대통술병(竹壺), 호두나무 바둑판(楸枰), 책상(書床), 책시렁(書庑), 약절구(藥臼), 화로(丹爐), 차술(茶鼎), 차주머니(茶簾), 목침(木枕), 대나무 평상(竹榻), 갈대밭(葦簾), 종이 병풍(紙屏), 부들 부채(蒲扇), 새 깃 부채(羽扇), 죽피관(簪冠), 갈건(葛巾), 샷갓(簞笠), 도롱이(蓑衣), 청려장(藜杖), 짚신(芒屨), 나막신(蠟屐), 부들자리(菴簾), 호로병(葫蘆), 안경(靛鏡), 시통(詩筒), 글자패(字牌), 거문고책(琴訣), 기보(碁譜), 괴석(怪石), 푸른색 담요(靑氈), 오래된 매화(古梅), 이름난 국화(名菊), 오동나무(梧桐), 파초(芭蕉), 포도넝쿨(葡萄架), 길백 병풍(桔柏屏), 참동계(參同契), 황정경(黃庭經), 금강경(金剛經), 능엄경(楞嚴經), 한위의 시(漢魏詩), 당송의 시(唐宋詩), 양생서(養生書), 나무심기 관련 책(種樹書), 고사전(高士傳), 열선전(列仙傳), 여지도(輿地圖), 역대도(歷代圖), 나무 촛대(木燭臺), 옥으로 만

植桃杏其外。其陽處林禽丹柝柏樹栗樹羅植之，玉蜀黍播之閒燥地，蓴一圃冬蓴一圃葱一區，錯理東牆之東，葵菜芥菜紫蘇，區置舍南而橫從之，菜菔菘菜種舍之西而畦隔一兩席，茄子蒔圃畔，其色紫白，甘瓠南蓴延四籬援群木。

20) 참고로 이옥의 『백운필』 역시 談果, 談菜 항목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 김려가 읊고 있는 과실류, 채소류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든 서진(玉書鎮), 고리 놀이기구(留客環), 죽부인(竹夫人), 양금(洋琴), 통소(洞簫), 생황(笙簧), 비파(琵琶), 여인 학(瘦鶴), 절룩거리는 나귀(蹇驢), 취향을 같이하는 벗(同調友), 글을 아는 아이종(知文僮), 옥도장(玉章 圖書), 인주(血標 印朱)²¹⁾

장훈이 소유하고 싶어 했던 80종의 맑은 용품을 통해 당시 그가 추구한 생활과 취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거문고, 검, 거울, 먹, 붓, 벼루, 서화, 향, 차, 국화와 매화 등에서는 모두 ‘古’나 ‘名’을 강조한 점에서 당시 유행하던 서화골동의 취향과 호사적 기호를 볼 수 있으며, 영목 표주박, 부들부채, 죽피관, 같은 따위에서는 탈속적, 閑情的 취향을 볼 수 있다. 양금, 통소, 거문고책 등에서는 예술적 취향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취향의 기물들과 김려의 기물들을 비교해 보면, 김려의 관심이 얼마나 일상적이고 물질적인 데로 다가섰는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만선와 잉고」에서 드러나는 사물에 대한 관심은, 유희적이고 소비 지향적이고 심지어 쇠말적이기조차 했던 18, 19세기의 한 취향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에 놓여 있는바, 그것은 한마디로 실용적 차원에서의 박물학적 취향이라 하겠다.

일상생활의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김려 기물시의 성격을 두 작품을 통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철 촛대(水鍊燭臺)>

삼층으로 이루어진 철 촛대
 제품이 자못 공교하네.
 납통에 불 켜고 기름을 잔에 부으면
 일시에 온 방이 환해진다.
 三層鍊燭臺 製品頗工妙
 蠟筒泊油卮 一時上下照²²⁾

21) 『한국문집총간 270』, 579쪽.

<백자 촛대(粉瓷燭筒)>

백자 촛대에 초를 꼽으니
 모두들 특별한 제품이라 하네.
 쓰임새는 작고 가벼워 편리하나
 빠르게 환해지기는 철 촛대만 못하네.
 插燭粉瓷筒 皆言製兼別
 用來小輕便 爽捷不如鐵²³⁾

위의 두 작품은 철 촛대와 백자 촛대를 각기 읊은 것인데, 두 가지 모두 김려가 쓰고 있는 촛대이다. 自註에 의하면 철 촛대는 그의 외종제인 李夏鉉이 준 것으로, 삼층으로 이루어져 맨 위에 蠟筒이 놓이고 중간에 기름 잔이 놓이고 아래에 넓은 받침대가 놓였다고 하였다. 또 백자 촛대는 直長 權聖尹이 백자 촛대를 구워서 자신에게 한 개 선물한 것이라 하였다. 두 작품을 나란히 읽어보면, 삼층의 철 촛대가 가볍고 작은 백자 촛대보다 한층 더 조명의 효과가 빠르고 크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김려는 사물의 성질 자체를 시의 내용으로 삼고 있는바, 박물학적 취향의 한시가 소재의 측면에서 뿐 아니라 내용의 측면에서도 실용적 관점이 관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物譜의 성격을 띤 주석의 활용

조선후기의 한시, 특히 약부시 계열의 한시에서는 주석을 풍부하게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다. 김려 역시 한시의 제목 아래 또는 시행 중간에 주석을 활용하여, 시의 내용을 보충 서술하였는데, 「사유약부」를 비롯하여 「良城春嚙集」의 <黃城俚曲> 204수와 <上元俚曲> 25수가 대

22) 『한국문집총간 289』, 445쪽.

23) 『한국문집총간 289』, 447쪽.

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만선와잉고』의 주석은 시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주석이라기보다, 별도의 작은 物譜라 할 수 있는 성격을 띠고 있다. 30종의 과실, 19종의 채소, 10종의 꽃, 42종의 기물은 각각 한 작품이 끝날 때마다 雙行의 小字로 각 종에 대한 간략한 지식 정보를 수집, 정리해 놓고 있다. 한시작품을 제거하고 이들 주석을 한 자리에 모으면, 바로 신후담의 <백과지>나 <물산기>, 또는 백과사전 방식 물보가 된다.

『만선와잉고』의 <衆果五古十韻三十首>를 대상으로 주석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 품종 및 명칭(物名)을 다룬 예

홍시(鴻柿): 紅柿는 붉은 과일이다. 烏와 白 두 개의 이름이 있고, 또 하나의 품종으로 柳柿가 있는데 이름이 綠柿이다.

포도(浦桃): 浦桃는 葡萄이다. 황 백 흑 자 청 5개의 품종이 있다. 대원에서 나는데 장군이 가져왔다.

으름(鷲覆): 으름은 일명 通草이다. 산 속에서 덩굴로 자란다. 열매는 연복자라 한다.

고욤(君遷): 군전은 작은 감이다. 일명 榎棗이다. 또 芋仍柿, 丁香柿라 한다.

○ 物產地를 다룬 예

대추(壺棗): 壺棗, 大棗, 乾棗는 우리나라에서 난다. 청산과 보은의 대추가 좋다.

배(快果): 쾌과는 배이다. 배의 품종은 매우 많다. 해서의 황주, 봉산 등지에서 나는 배가 가장 좋다.

○ 생태 및 속성을 다룬 예

홍매(紅梅): 홍매의 꽃은 열은 붉은 색이다. 5월에 열매를 따서 불로 쪄어서 烏梅(매실을 검은 빛이 나게 만든 것)와 白梅(매실을 변색이 되지 않게 말린 것)를 만든다. 노랗게 익으면 향이 나고 달다.

산딸기(蓬蘽): 산딸기는 복분자와 비슷하다. 덩굴에 열리는 것은 산딸기이고, 나뭇가지에 열리는 것은 복분자이다.

사과(蘋婆): 빈과는 사과이다. 흰 색, 붉은 색, 녹색 세 가지 색이 있다. 檳菓와 沙菓를 번갈아 심으면 반은 붉고 반은 희다.
 오디(桑葚): 뽕나무 꽃 판에 오디가 달려 있다. 꽃 판에 오디가 없으면 槲桑이다. 山桑은 산뽕나무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품종 및 명칭, 物產地, 생태 및 속성을 서술하는 주석 방식은 채소와 꽃의 경우에도 고스란히 적용되어 있다. 다만 <衆花五律十首>는 자기 집에 있는 품종을 강조하여 서술한 특징이 있다. 과일, 채소, 꽃에 부친 김려의 주석이 일반적인 물보류와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때, 김려는 자신의 경험과 함께 『본초강목』 등의 문헌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채소류의 경우, 당시 한글로 物名을 표기하는 물명고류와 유사하게, 김려는 方言 이라 하여 우리말 물명을 적극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무우, 배추, 달래, 토란, 고추, 호박’ 등이 그러한 예이다. 심지어 고구마의 경우 일본어 명칭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衆器五絶四十二首>의 경우는 양상이 사뭇 다르다. 자신이 사용하는 기물의 용도와 소유 과정 등 자신의 체험이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소유래를 밝힌 예
 중국산 벼루(燕硯): 병마사 정학경이 중국산 벼루 한 개를 주었는데, 둘의 품질이 극히 좋다.
 철 촛대(水鍔燭臺): 석견루 이복현이 주었다.
 털 가죽신(毳布黑靴): 처음 사환에 나갔을 때 김조순이 상방의 털 가죽신 한 켤레를 보내 주었다.
 주묵(硃墨): 김조순이 책을 주면서 주묵 한 개와 남포산 벼루를 주었다.
 관음죽 담뱃대(觀音烟筒), 오사모(烏紗帽), 인주함(印硃盒), 보이차(普洱茶), 인찰판(印札板)
- 물산지를 밝힌 예

해주산 먹(海州墨): 해주산 먹을 해주 목사 이면승이 주었다. 해주산 먹은 措大間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목면 단령(木綿團領): 한강의 면포가 나라 안에서 으뜸이다.

고운사에 만든 은지(孤雲銀紙), 은제 담배갑(鐵銀烟栝), 철제 담배합(南靈鐵盒), 앵무조개 조가비 술잔(鸚鵡殼盃), 당피로 만든 자리(唐皮涼簟), 정원산 탕건(定遠宕巾)

○ 제작자와 품질을 밝힌 예

백자 연적(白瓷硯滴): 사옹원의 직장 권중임이 백자 연적을 구워서 주었다. 형질이 순백이다.

놋쇠 요강(錫虎子): 강경 포구의 유기장 마가가 유기 요강을 만들었는데, 품질이 매우 나쁘다.

오동나무 벼루집(梧桐硯匣): 내가 황성에 있을 때 오동나무 판을 불러 지저서 벼루갑을 만들었는데, 바탕색이 검으면서 가벼워 아낄 만하였다.

흑각패(黑角牌), 쥐가죽으로 만든 귀덮개(鼠皮耳掩), 돌인장(石印), 고래수염으로 만든 갓 걸이(鯨鬚笠掛), 푸른 명주 담배갑(靑紬烟匣), 호로병(蘆瓠瓶), 백자 촛대(粉瓷燭筒)

○ 유행을 밝힌 예

양털 붓(羊毫筆): 근래 서예가들은 웅방강의 필체를 모방하여 양털 붓을 선호한다.

○ 가격을 밝힌 예

당판 사기(唐板史記)

○ 일본산 용품임을 밝힌 예

남평산 부채(南平扇), 구리 환도(銅鑲刀), 옷칠한 등닝쿨 채찍(髹漆藤鞭), 구리 찻단지(銅罐子), 풍로구(風爐口), 유기 주전자(錫煎子), 상아 저울(牙秤子)

이상에서 보듯이 김려가 각각의 기물에 부친 주석은 앞에서 살펴본 과실, 채소, 화훼류와 달리 기존 문헌을 활용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당 사물의 정보, 지식을 정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아마도 기물의 경우 참조할 문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김려가 독자적으로 각종 기물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정리하여 일종의 사적 성격의 器

物譜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에서 주목되는 또 한 가지는 점은 일본산 용품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후기에는 대마도와 동래를 통해 일본산 생활용품들이 다량 들어와 유통되고 있었던 바, 김려는 그러한 사실을 주석과 시에서 밝히고 있다. 다음에 보이는 두 작품은 일본제품의 우수성을 노래한 예이다.

<유기 주전자(錫煎子)>

유기 주전자 샀는데
 일본 이세주에서 왔지.
 이제부터 술 데우는 주전자가
 어찌 운루의 집 주전자에 양보하랴?
 買得錫煎子 來從伊勢州
 從今煖酒具 不復讓雲樓

<상아 저울(牙秤子)>

단소한 상아 저울
 몹시도 정교하게 별을 새겨 넣었네.
 일본 육오주에서 사왔는데
 神工의 솜씨인가 상상해 보네.
 短小象牙秤 嵌星極細巧
 買來陸奧船 想像神工仄²⁴⁾

첫째 작품은 일본 이세주에서 생산되는 유기 주전자를 구입해 써보니 성능이 매우 좋아, 평소 酒具를 많이 가지고 있던 雲樓 俞子範이 이제 부럽지 않다는 내용이다. 둘째 수는 일본 육오주에서 생산되는 상아 저울을 구입하였는데, 저울에 새겨진 별이 어찌나 정교한지 신공의 솜씨인

24) 『한국문집총간 289』, 446-447쪽.

가 싶다는 내용이다. 이 시의 주석에는 동래사람들이 육오주산 상아 저울을 수입해 오는데 제품이 매우 정교하다 하였다.

이상에서 「만선와잉고」의 주석들을 유형별로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김려는 자신의 생활 주변에 포진한 각종 사물들을 향한 시적 감수성을 발휘함에 있어서 박물학적 관심과 취향을 반영하여, 詩作과 物譜를 병행시키는 독특한 양식을 개척하였던 것이다.

3. 박물학적 견문과 일상 체험의 결합

앞의 두 절에서 제재와 주석의 측면에서 「만선와잉고」가 취하고 있는 박물학적, 실용적 관점을 확인해 보았다. 이 절에서는 「만선와잉고」 소재 한시작품들의 성격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사물의 생태와 속성 자체를 형상화한 경우이다. 다음의 시가 그러한 예이다.

<아욱(春葵)>

푸르고 푸른 밭 채소 중에
이름난 채소 적지 않지만
아욱은 여러 채소들의 주인
기름진 땅에서 부드러운 아욱이 나지.
이른 봄 거친 밭을 갈려면
소의 힘을 매우 많이 써야 하지.
흙덩이 부수고 아욱 씨를 심으면
밭고랑 구획 따라 쭉쭉 자라나네.
열흘 지나 싹이 처음 터지더니
아이 손가락 굵기의 줄기가 나온다.
흰 싹이 맑은 줄을 친 듯 자라고
이슬 맞은 꽃이 새벽 기운에 어여쁘다.
작은 것 따주면 더욱 생기를 머금고

겉가지 쳐주면 점점 곧게 자라난다.
 물성이란 진실로 기이하니
 자연의 이치는 참으로 아득하구나.
 (후략)

青青畦中蔬 名數頗不少
 葵爲衆菜主 土膏孕柔標
 先春理荒穢 牛力甚馴擾
 破塊藝其子 九畝劃天矯
 經旬甲始坼 童指韃勒了
 霜牙絢清晝 露蕤媚寒曉
 小摘益函活 頻剔漸蹇矯
 物性固奇詭 天理儘冥杳²⁵⁾

김려는 이 작품 아래 “『본초강목』에 아욱은 온갖 채소의 주인이라 하였다. 春葵 곧 봄 아욱은 먹을 수 있고, 冬葵 곧 겨울 아욱은 단지 씨를 따서 약으로 쓰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석을 달았다.²⁶⁾ 위 시는 이러한 주석의 내용과 연관하여, 아욱의 생태와 성질을 부연 서술하였다. 첫 4구에서는 『본초강목』에서 이른바 ‘아욱은 온갖 채소의 주인’이라는 말을 달리 말한 것이다. 다음 4구는 춘규를 파종하여 재배하는 과정을 서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산림경제』의 ‘治圃’조 ‘冬葵’ 항목에서 보이는 “봄에는 반드시 畦種法으로 한다.”는 것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지 사물에 대한 관심이 지식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실제 재배 경험을 통해 사물의 생태와 성질을 형상화 한 것이라 하겠다. 다음의 8구는 아욱이 싹이 나서 쭉쭉 자라는 모습, 어린 순을 따고 겉가지를 쳐서 생장을 돕는 모습을 묘사하였는데, 생물의 생기와 인간의 활기가 한데 어우러진 기쁨을 연출하고 있다.

25) 『한국문집총간 289』, 441쪽.

26) 『산림경제』 ‘治圃’조 ‘冬葵子’항목에는 “가을에 심은 아욱을 덮어서 길러 겨울을 지나 봄에 씨를 맺는 것을 동규라 하는데 약에 많이 들어간다. 춘규의 씨는 약으로 쓸 수 없다.”하였다.

사물의 생태와 속성, 그를 바라보고 누리는 인간의 흥취를 생생하게 형상화한 이 시의 미적 성취는, 다음에서 보이는 김창업의 <아욱(葵)> 과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이슬 내린 푸르고 푸른 아욱을
뜯어다가 곧장 삶았네.
고기 먹는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은데
이 맛을 모름지기 이는 이 적구나.
青青露下葵 折來旋烹之
願分食肉人 此味須少知²⁷⁾

김창업의 이 시 역시, 전대의 영물시와 비교해 보면 일상적 정경을 잘 포착하였다고 보인다. 특히 1, 2구에서 아침 일찍 이슬이 댄댄 내린 싱싱한 아욱을 뜯어다 데치는 내용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 시는 다음 3, 4구에서 肉食家 곧 부귀한 자들이 이 맛을 알 리 없다는 말로 시상을 정리함으로써 1, 2구에서 이룩한 생생한 흥을 이어가지 못하고 말았다. 물론 김창업의 시가 오언절구라는 극히 짧은 시형을, 김려가 비교적 긴 10운의 오언고시 형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생긴 차이도 있겠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사물에 대한 견문과 체험의 밀착 정도에서 생긴 차이라 하겠다.

둘째, 자신의 일상생활을 정경화한 경우이다. 다음 두 작품이 그러한 예이다.

<상추(萵苣)>

병든 아내 손수 상추를 따서
나를 위해 아침 밥상에 올렸네.
겨자즙에 저민 생선을 다져 넣고
고추장에 술지게미를 넣었네.

27) 『한국문집총간 175』, 42쪽.

보리밥이 비록 거칠어도
부드러운 감칠맛이 비길 데가 없네.
상추 여러 장을 포개어 싸서
입을 꼭 벌리고 우적우적 먹고서,
북쪽 창 아래 배가 불러 누우면
이 백성이 바로 신선 회황이지.

病妻親手摘 朝飡爲我嘗
芥汁糝蠡軒 椒醬夾槽姜
麥飯雖麤糲 恬滑美無方
搖疊以裹之 大嚼吻弦張
飽頰北牕下 是民眞義皇²⁸⁾

<곰취(熊蔬)>

붉은 고추장은 윤기가 찰찰
햇쌀 하얀 밥은 따끈따끈.
거위 알처럼 여러 겹으로 싸서
입을 벌리고 잘근잘근 씹다가 삼키면,
맑은 향이 폐와 위장을 적시며
온 몸에 난초와 창포 향이 스미는 듯.(후략)

蠻椒紅醬滑 戎稻白飯溫
包疊似鵝蛋 張口細嚼吞
清馥沁肺胃 渾體襲蘭蓀²⁹⁾

위의 두 작품은 인용한 부분에서 보듯이 상추와 곰취를 자신이 즐기는 식용 대상으로 포착하여 상추쌈과 곰취쌈을 먹는 정경을 매우 활달하고 씩씩하게 묘사하고 있다. 상추와 곰취의 생태나 속성에 대한 기술은 주석으로 돌리고, 시에서는 오직 자신의 식생활 정경을 확대하여 형상화할 뿐이다. 상추쌈에 곁들이는 쌈장과 곰취쌈에 곁들이는 쌈장을 자

28) 『한국문집총간 289』, 442쪽.

29) 『한국문집총간 289』, 443쪽.

세하게 묘사하고, 먹음직스러운 씹을 한 입에 넣고 우물거리는 모습을 묘사한 이 시는, 사물 그 자체를 누리는 작은 일상이 문학의 중요한 부분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³⁰⁾

셋째, 사물의 용도나 용법을 읊은 경우이다. 다음의 작품이 그러한 예이다.

<고추(丹椒)>

마당 텃밭에 부드러운 채소를 심고
 들판 들판 초가집 둘레에 고추를 심었네.
 고추는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어
 이로운 공이 채소 중에 으뜸이지.
 여름철 가지런히 달리면
 한 움큼 손으로 따서 부다.
 겨울 김장에는 고추가 절반이라
 맵고 짜도 향기로운 가득하지.
 녹각채(청각)도 이보다는 못하니
 은근히 배추와 무에 대적한다.
 가늘게 뺨아 소금과 메주와 섞어
 빛깔 좋은 붉은 고추장을 만든다.
 고기 짓이겨 생강 계피 섞어
 씨를 발라 낸 고추에 소로 넣고
 송편처럼 죽 넣어서 넣고
 시루에 푹 찌내어
 푸른색 붉은색 각각 달리 담아내면
 이름다운 무늬처럼 화려하기도 해라.
 강황이 菜譜에서 빼놓았지만
 지금은 가장 귀한 죽속이지.

30) 김창엽의 <상추(蒿苣)> “상추는 기름진 땅을 좋아하니, 봄비 내릴 때 씨를 심는 것이 맞네. 이 물건 내 밥상에 오르면, 가는 파가 반드시 따라와야지(蒿苣喜土肥, 下種春雨宜. 此物登我盤, 細蔥必相隨).”의 시도 김려의 시와 유사하다.

庭畔植柔蔬 扶疎逸茆屋
 蠻椒供四時 功利冠羣菽
 當夏齊結實 采之盈我匊
 冬菹爾居半 辛醎芳氣馥
 鹿角斯下風 隱然敵崧菴
 細屑拌塩鼓 璀璨丹砂粥
 肉泥蘸薑桂 剔子填其腹
 安排似松餅 瓷甌爛蒸熟
 青紅各異盤 美彩絢爛煜
 姜皇漏菜譜 於今最清族³¹⁾

채소류나 과일류 등 식용물을 읊은 시작들 중 이 시만큼 식용법 또는 요리법을 맛깔스럽고 정감 넘치게 묘사, 서술한 시를 달리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여름철에는 풋고추 그대로, 겨울에는 김장 김치의 필수로, 메주, 소금과 섞여 붉은 고추장으로, 고기 다진 소를 넣은 고추 만두로, 고추는 제각기 훌륭한 음식으로 탈바꿈하여 읽은 이의 눈과 입을 현란하게 스친다. 이 시에서 든 고추 요리란 실상 김려 자신의 밥상에도 빈번하게 올랐던 것일 터, 남성 사대부 문인들의 관심과 거리가 먼 부녀자의 일처럼 여겨지는 요리가 이렇게 시로까지 형상화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는 박물학적 취향, 실용적 관심이 뛰어난 시적 감수성과 만나 이룩한 생활시의 미학이라 하겠다.

넷째, 사물을 통해 주변인, 백성들의 삶으로 시선을 확대한 경우이다. 다음에 보이는 두 작품이 그러한 예이다.

<도토리(橡阜)>

갑술년 여름 비가 내리지 않아
 나라 안 밭들이 모두 타버렸지.

31) 『한국문집총간 289』, 442쪽.

묵은 쌀에 겨와 쪽정이가 섞여도
 목화 한 필로 겨우 쌀 반 말.
 누가 주린 배를 채울 계책 할 수 있으랴?
 모든 집들 입에 풀칠도 끊어졌으니.
 밭 채소 또한 이미 없어졌는데
 다행히도 동산에 도토리 조금 있네.
 남녀 모두 붙들고 나가서
 양손으로 주워보면
 게으른 자 겨우 한 줌 줍고
 부지런한 자 항아리를 채우지.
 해가 저서야 지쳐 돌아오면
 사방의 이웃들 절구질을 하네.
 죽을 써서 나누어 먹고
 나머지는 개와 닭이 먹는다.
 떡갈나무 도토리 맛이 더욱 못해
 뚱고 쓴 맛 견디기 어렵지.
 내 생애 의지할 곳 없으니
 어찌 또 회한 속에 살아가리?

甲戌夏不雨 八城焦蘊畝
 陳糙雜枇糠 木匹纒半斗
 誰能計饑飽 盡室斷糊口
 畦蔬亦已耗 園橡幸稍有
 男婦相扶携 揶擷竝兩手
 慢者僅匆握 勤者恰罍甌
 日暮圍圍歸 四鄰動杵臼
 飯粥隨分喫 餘啄及鷄狗
 榭阜味尤劣 辣澁苦難厚
 吾生無依着 寧復恨中壽³²⁾

<쇠귀나물(慈姑)>

32) 『한국문집총간 289』, 440쪽.

춘궁기도 끝이 있으니
 쇠귀나물이 온 들에 수북하네.
 남쪽 집에서는 손잡고 나가고
 북쪽 집에서는 가래 매고 가네.
 힘들여 그 뿌리를 캐니
 다행히 광주리 넘치게 차네.
 농가에선 쇠귀나물 뿌리로 죽을 쑤는데
 방법은 비교적 획일적이지.(하략)

春饑亦有涯 慈姑四野密
 南隣携攫去 北隣荷鋤出
 艱難采其根 傾筐幸得溢
 田家鬻茨菰 方法較畫—33)

김려의 주석에 의하면, 도토리는 ‘구황작물로 마땅하다.’하였고, 쇠귀나물³⁴⁾ “자고는 野茨菰이다. 칼로 풀뿌리를 벤다. 일명 河臍菰, 白地粟이라 한다. 구워서 과자를 만든다.”하였다. 이와 같이 주석에서 밝힌 도토리외 쇠귀나물의 속성을 바탕으로, 이 시는 당시 궁핍한 백성들이 도토리와 쇠귀나물 뿌리로 생계를 연명해가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橡阜> 시에서 말한 갑술년은 1814년으로 이때 김려는 의금부 말직에 있었다. 그 자신 역시 일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곤궁한 처지였기에, 더욱 절실하게 백성들의 사정에 공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토리 중에서도 떡갈나무 도토리가 더욱 뚫고 쓰다고 하여, 체험의 정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만선와잉고」 소재 한시의 성격과 미적 성취를 가늠하기 위해, 몇 편의 작품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만선와잉고」의 한시

33) 『한국문집총간 289』, 440-441쪽.

34) 유희의 『물명고』에서는 慈姑를 ‘십즈히풀’이라 하였고,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의 ‘菜種’의 <山野菜辨證說>에서 野茨菰를 ‘물웃’이라 하였다. 여기서는 「산림경제」의 국역이나 일반 사전류에서 ‘쇠귀나물’로 옮기고 있으므로, 쇠귀나물로 일단 옮겼다.

세계는 사물의 생태와 속성 그 자체에서 발견되는 사물의 미와, 일상생활에서 각종 사물을 체험하면서 촉발되는 서정적 감수성이 박물학적 취향과 결합된 생활시의 미학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V. 결론

본고는 김려 한시의 중요한 한 특징을 조선후기 박물학적 취향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김려의 「우해이어보」나 「만선와잉고」가 18, 19세기 서울, 근기 지역 지식인들 사이에서 성행한 박물학적 취향과, 그러한 취향의 결과로 나타난 각종 물보류의 글쓰기들과 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魚譜와 風俗誌를 결합한 「우해이어보」가 김려의 박물학적 취향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자료임에는 분명하다. 그런데 본고가 특별히 「만선와잉고」를 조명한 이유는 박물학적 취향이 한시양식에서 나타나는 구체적 모습을 포착하여 그 의미를 드러냄으로써, 조선후기 한시가 새롭게 변모해가는 과정을 문제 삼고자 해서이다. 논의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7세기 이후 서울, 근기 지역 지식인들 사이에서 박물학적 취향이 대두되어 사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 정리하는 글쓰기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성행하였다. 이러한 사조 속에서 김려는 유배체험과 농사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변에 포진한 각종 사물들에게 박물학적, 실용적 관심을 기울여 나갔고, 그러한 관심의 결과가 「우해이어보」와 「만선와잉고」로 나타났다.

「사유악부」를 통해 충분히 드러났듯이, 김려는 뛰어난 시적 감수성을 지닌 시인이었다. 세계를 자아화하는 서정시 양식을 통해, 김려는 당대 최고의 수준으로 자신이 경험한 인간세상을 형상화해 내었다. 그러한 김려가 인간이 아닌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사물들로 시적 감수성을 확대

한 것이 바로 『만선와잉고』의 한시작품들이다. 그는 당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양으로, 일상생활의 사물들을 독립적으로 지속적으로 시작화 해나갔다. 그가 읊은 사물들은 그의 집에서 재배하는 과수, 채소, 화훼요, 그가 생활에서 매일 쓰는 기물들이었다. 그는 그러한 사물들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물보류에 근접하는 주석을 달고, 나아가 자신의 체험을 시적 감수성을 발휘하여 생활시의 면모를 개척해 나간 것이다.

주제어 : 김려, 만선와잉고, 박물학적 취향, 실용, 일상, 물보, 주석, 과실, 채소, 화훼, 기물, 생활시

참고문헌

- 『瀟庭遺藁』(한국문집총간 289)
『老稼齋集』(한국문집총간 175)
『旅菴遺稿』(한국문집총간 231)
『而已廣集』(한국문집총간 270)
『河濱先生文集』(아세아문화사, 2006)
『국역 산림경제』(민족문화추진위원회)
『김려작품집』, 조선고전문학총서72, 평양문예출판사, 1990.
김려 지음, 박준원 옮김, 『牛海異魚譜』, 다운샘, 2004.
김여 지음, 박혜숙 옮김, 『부령을 그리며』, 돌베개, 1996.
- 강혜선, 「김려의 패관소품문 연구」, 『조선후기 소품문의 실체』, 태학사, 2003.
- 김영진, 「李鈺 『白雲筆』 연구」, 2005학년도 계명한문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 요지문.
- 박준원, 「『瀟庭叢書』 연구」, 성대 박사논문, 1994.
- 박혜숙, 「사유악부 연구」, 『고전문학연구』 6, 한국고전문학회, 1991.
- 안대회, 「이옥의 저술 『담배의 경전(烟經)』의 가치」, 『문헌과해석』 24, 문헌과해석사, 2003.
- 정 민, 「18세기 지식인의 玩物 취미와 지적 경향 - 『鶉合經』과 『綠鸚鵡經』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23, 한국고전문학회, 2003.
- 허준구, 「담정 김려의 시세계 - 그 인생역정에 따른 시경향」, 성대 박사논문, 2001.

<Abstract>

The trend of wide encyclopedic knowledge in
the late period of Joseon Dynasty and
Kim-Ryo's Chinese poetry

Kang, Hye-Sun*

This essay illuminates the relatedness between the notable features of Kim-Ryo's Chinese poetry and the trend of wide encyclopedic knowledge in the late period of Joseon Dynasty. Intellectuals wrote a great variety of wide encyclopedic knowledge. Kim-Ryo interested in this trend also wrote categorical explanations of fishes. That book's name is Uhae-ieobo. The contents of the book are interesting. He recorded the ecology of fishes and the local customs in the Uhae-ieobo. While he was exiled in Buryong and Jinhae, he took interest in wide encyclopedic knowledge. Especially he had a vast stock of knowledge in the living necessities. After he returned from the place of exile, he grew vegetables and fruits, flowers in his farm and garden. Manseonwainggo, the collection of poems is based on his actual experience of growing vegetables and fruits, flowers. In addition he wrote the poems on the theme of the living necessities. In this collection of poems, he wrote the poems in his own way which was annotated. Annotations of the poems have a strong resemblance to kinds of Mulbo, categorical explanations of things. Kim-Ryo's poems are lyric and sensitive on the theme of his every day lives. He

* Pf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expresses vegetables and fruits which he had grow and eaten every day. He expresses flowers which he had grow and watched every day. He expresses living necessities which he had used every day. These poems show the change of lyric poem under the influence of wide encyclopedic knowledge and practical science.

Key Words : Kim-Ryo, Manseonwainggo, practical, every day life, Mulbo(categorical explanations of things), annotation, vegetable, fruit, flower, living necessities, poetry on the theme of every day life.